

대전시 경륜도박장 건설에 대한 대전시민 찬반 의식조사 보고서

◀ 대전시민 의식조사 개요 ▶

- | | |
|----------------------------------|------------------------------|
| - 조사기간 : 2002년 11월 25일 ~ 12월 31일 | - 배 부 수 : 총 600부 중 - 514부 회수 |
| - 대 상 : 대전광역시 시민 | - 주 관 : 대전YMCA |
| - 방 법 : 면접 설문조사 | - 주 최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1.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 성별 : 남성 202명(39.3%), 여성 312명(60.7 %)
- 거주지별 : 동 구 108명(21.0%) / 중 구 77명(15.0%)
서 구 116명(22.6%) / 유성구 126명(24.5%)
대덕구 87명(16.9%)

2. 경륜장 여론조사 목적

대전광역시가 도입을 추진중인 경륜장에 대해 지방재정확충 및 레저기회 보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사행심 조장 및 도박중독자 양산 등의 문제가 상충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의식조사를 통하여 올바른 여론을 수렴하고,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3. 경륜장 건설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

1) 성 별

성 별	빈 도	백분율(%)
남 성	202	39.3
여 성	312	60.7
합 계	514	100

조사대상자들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39.3% 여성 60.7%로 응답자 중 여성의 비율이 많음 것으로 나타났다.

2) 연 령

연 령	빈 도	백분율(%)
19세 이하	10	1.9
20 ~ 29세	187	36.4
30 ~ 39세	117	22.8
40 ~ 49세	132	25.7
50 ~ 59세	42	8.2
60세 이상	26	5.1
합 계	514	100

조사대상자들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19세 미만 1.9%, 20세~29세 36.4%, 30세~39세 22.8%, 40세~49세 25.7%, 50세~59세 8.2%, 60세 이상 5.1%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연령 중 20~29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거주 지역

거주 지역	빈 도	백분율(%)
동 구	108	21.0
중 구	77	15.0
서 구	116	22.6
유성구	126	24.5
대덕구	87	16.9
합 계	514	100

조사집단의 거주지역별 분포로는 동구가 21.0%, 중구 15.0%, 서구 22.6%, 유성구 24.5%, 대덕구 16.9%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의 거주 지역은 유성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경륜도박장 개설 추진 사실

경륜도박장	빈 도	백분율(%)
알고 있다	239	46.5
모르고 있다	275	53.5
합 계	514	100

조사대상자들에게 대전시가 대규모 경륜도박장 개설을 추진하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 46.5%, 모르고 있다 53.5%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경륜도박장 개설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보다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경륜도박장

경륜도박장	빈 도	백분율(%)
찬 성	73	14.2
반 대	394	76.7
잘 모르겠다	47	9.1
합 계	514	100

조사대상자들에게 대전시의 경륜장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월평동의 실내 경마도박장과 유성의 실내 경륜도박장에 이어 경륜도박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 14.2%, 반대 76.6%, 잘 모르겠다 9.1%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경륜도박장 건설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찬성하는 이유

찬성하는 이유	빈 도	백분율(%)
레저스포츠인 경륜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음으로	28	19.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므로	39	26.7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확보 할 수 있으므로	29	19.9
다른 지역에 입지하는 것보다 대전에 입지하는 것이 좋으므로	24	16.4
경륜뿐만 아니라 수영장 등 종합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25	17.1
기 타	1	0.7
합 계	73/514	100

조사대상자들에게 경륜도박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나라는 질문에(복수 응답) 레저스포츠인 경륜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음으로 19.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므로 26.7%,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확보 할 수 있으므로 19.9%, 다른 지역에 입지하는 것보다 대전에 입지하는 것이 좋으므로 16.4%, 경륜뿐만 아니라 수영장 등 종합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17.1%, 기타 0.7%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경륜도박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므로”와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확보 할 수 있으므로를” 찬성하는 이유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 반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반대하는 이유	빈 도	백분율(%)
경륜도박장은 건전한 관람스포츠가 아니라 도박산업임으로	199	25.3
대규모 도박장으로 사행심 조장, 서민가정의 파탄(각종 유흥업소의 입주난립)	280	35.5
교통, 생활환경의 파괴	61	7.7
사행심을 조장하고 교육환경과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의 생활환경을 파괴하기 때문	243	30.8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기 때문에	5	0.7
기 타	-	-
합 계	394/514	100

조사대상자들에게 경륜도박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나라는 질문에(복수 응답) 경륜도박장은 건전한 관람스포츠가 아니라 도박산업임으로 25.3%, 대규모 도박장의

로 사행심 조장, 서민가정의 파탄(각종 유흥업소의 입주난립) 35.5%, 교통, 생활환경의 파괴(1일 수만명에 이르는 이용객, 교통문제) 7.7%, 사행심을 조장하고 교육환경과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의 생활환경을 파괴하기 때문 30.8%,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기 때문에 0.7%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은 경륜도박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대규모 도박장으로 사행심 조장, 서민가정의 파탄(각종 유흥업소의 입주난립)”과, “사행심을 조장하고 교육환경과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의 생활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을 반대하는 이유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경륜장 여론조사 총평

대전시의 경륜장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10명가운데 8명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륜도박장에 대한 질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4.2%에 그친 반면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76.6%로 나타난 것은 대전시가 그동안 다수 시민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설문조사 응답자가운데 경륜도박장 찬성이유로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므로’가 26.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확보’(19.9%), ‘레저스포츠인 경륜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음으로’(19.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규모 도박장으로 사행심 조장 - 서민가정의 파탄(각종 유흥업소의 입주난립)’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교육환경과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의 생활환경을 파괴하기 때문’(30.8%), ‘경륜도박장은 건전한 관람스포츠가 아니라 도박산업이므로’(25.3%)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대전시의 경륜장 추진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륜장 추진 절차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은 물론 대전시민들과의 어떠한 여론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점과, 이번 설문조사결과가 그동안 대전시가 주장했던 다수시민이 찬성한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난 점 등은 경륜장 건설에 대한 시민여론의 왜곡은 물론,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6. 경륜장 건설의 문제점 분석

최근 로또복권 열풍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사행성을 부추기는 도박산업에 대한 관심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로또복권의 사회적 열풍 이전에도 이미 우리나라 국민 두명중에 한명꼴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도박을 경험을 할 정도로 도박시설은 우리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광역시도 세수증대와 시민레저 기회제공이라는 명분아래 대규모 경륜장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과포화상태에 이른 우리나라 도박산업의 문제점을 관과하고 있는것이나 다른

없으며, 145만 대전시민들 전체를 도박중독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실제로 대전시는 수천만원을 들여서 만든 용역보고서에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도박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 여론을 왜곡하려는 의도적인 용역인 것이다.

대전광역시가 그동안 경륜장입지를 위한 타당성 분석 용역에서 의도적으로 외면하려 했던 우리나라 도박산업의 문제점과 대전광역시의 경륜장 건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마사회가 지난해 용역의뢰한 ‘병적도박 실태조사 및 치료프로그램’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박 중독자 비율이 미국, 캐나다, 호주보다 무려 3.6~4.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도박중독자는 전체성인 인구의 9.28%에 해당되는 3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실제로 도박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인구만도 전체 성인인구의 3.8%에 해당되는 1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조사결과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일본등의 도박중독자 비율 1~2%보다 훨씬높다는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이런 도박산업(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복권, 화투·카드 등) 이용객 가운데 병적도박자로 진행되는 비율은 경륜, 경마, 경정, 등의 합법화된 사행산업이 화투·카드, 인터넷 도박 등의 불법도박 보다 오히려 두배이상 높게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¹⁾

이러한 결과는 도박시설의 입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독자 양산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정부와 자치단체가 오히려 앞장서서 도박시설을 유치하고 장려하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륜의 경우 도박 중독자 비율과 고객유병률이 각각 44.4%와 33.3%로 불법도박인 화투나 인터넷도박 보다도 훨씬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1> 표적도박자 진행비율 - 고객유병률 2)

구 분	화투·카드	복 권	인터넷도박	경 마	카지노	경 륜	기 타
중독자비율	19.1%	18.1%	30.9%	35.7%	27.3%	44.4%	29.5%
고객유병률	7.9%	6.5%	14.5%	21.4%	18.2%	33.3%	13.1%

셋째,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등 합법적인 사행성 산업에 대한 도박중독자의 사회적 비용을 최대 10조원(2001년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어, 같은기간 사행산업 총매출 8조 6358억원을 상회하고 있기도 하다.

1) 고진부, 국회의원(민주당), 한국경마 국감자료 일부, 2002.

2) 한국마사회, ‘병적도박 실태조사 및 치료프로그램 중간보고서’, 2002

고객유병률이란, 경륜장 등 도박시설을 이용하는 고객가운데 병적도박자로 진행되는 비율을 말함.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만족하는 사람은 전체 1.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도박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인적지원은 전무한 상태에 있다. 3)

넷째, 각종 사행시설의 1회 평균 배팅금액은 카지노가 290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경마가 37만원, 경륜이 3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서민들이 이런 1회배팅금액을 부담하면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사행성을 부추기고 도박중독자를 양상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 2002년도 사행산업(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등)의 총 매출은 11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전년대비(8조 6358억원) 31.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 절반에 해당되는 2천4백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체 레저시장(2001년 17조)에서 차지하는 총사행산업 비율도 66.6%로 일본의 26.5%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4)

여섯째, 세수증대에 눈먼 대전시의 경륜장 건설은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격이다. 과거 과천의 경마장, 서울의 경륜장, 미사리 경정장 등 몇몇 지역에 국한되어 입지한 도박시설의 경우, 한곳으로 집적되어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경제외적 효과까지 거둬드릴 수 있었지만, 최소 지역별로 도박시설을 분산하고, 경륜·경마·경정·카지노 등 업종별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었을때는 지역간·업종간 무한경쟁으로 인한 세수증대 및 경제외적 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은, 경제학의 상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간 도박시설의 분산과 업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결국 도박시설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의 대부분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시장규모 등 입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곱째,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대전시의 경륜장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은 부실용역이라는 의혹을 덜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전시는 2006년 이후 연간 585억~940억원의 세수증대와 대전시민들의 이용비율이 30%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희망은 도박산업의 여건변화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다분히 의도적인 예측이라 판단된다.

또한 1회 배팅금액이 경륜의 경우 35만원에 이르는 사행시설 가운데 가장 강한 도박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외면하고, 시민들의 여론수렴 절차조차도 밟지 않은 것은 스스로 부실용역을

3) 고진부 국회의원(민주당), 2002년 한국경마 국감자료 일부

4) 사행산업의 정확한 총 매출규모는 집계되지 않는 사실경마, 인터넷 도박, 성인오락실 등을 합하면 국내 사행산업의 실제 매출액은 15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총액(2001년도 약 17조원)에 육박하는 규모임다(한겨레, 2002. 10. 18일자 사회면)

한 것으로 밖에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여덟째, 대전시가 경륜장 건설을 검토하기 이전에 이미 월평동 계룡사옥과 유성관광특구 지역 내에 장외경마장과 장외경륜장이 영업을 하고 있다. 두지역 인근 주민들은 장외도박장으로 인해서 막대한 주민생활피해를 호소해오고 있다.

러브호텔과 안마소 등 각종 유흥시설 난립으로 시민생활환경 파괴는 물론, 경마가 열리는 주말이면, 불법주차로 골목길마다 주차대란을 겪고 있으며, 개장당시 주민들과 약속한 주민프로그램 실시와 주차장 확보 약속은 개장이후 감감무소식이다.

7. 제언 및 결론

도박시설로 인한 지방세수 증진에 기여한다는 사실 때문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박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5)

자치단체들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도박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은 쉽게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자치단체들은 “국세 위주의 중앙집권적 조세체제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 며 새로운 경영행정 수단으로 도박산업을 내세우고 있다. 게다가 여가시간과 소득의 증가로 늘어나는 레저문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산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자치단체의 이런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시각이 공공성을 포기하고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 판단된다. 지방세수 증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그만큼 많은 돈을 잃어야 한다는 얘기이며, 엄청난 부작용도 외면한다는 얘기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결국 대전광역시도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생긴 재정적자와 중앙집권적인 조세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스스로의 자구노력은 외면한 채 사행성이 강한 경륜장 유치로 해결하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시민들을 경륜장으로 유인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버려야 하며, 우선해서 건전 재정을 위한 자구노력과 도박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재정난이 문제가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국세 위주로 짜여진 조세체제의 개혁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5) 경기도는 지난해 경주마권세로만 4415억원을 거둔 실적에 힘입어 하남에 경정장을, 광명에 경륜장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이후에는 최소 8000억원이 넘는 재정을 도박산업으로 조달한다는 게 경기도의 계획이다.

이에 뒤질세라 부산시는 장외 경마장을 세 곳에 추가 설치하고 아시아경기대회 승마장을 경마장으로, 금정 사이클 경기장을 경륜장으로,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에 경정장을 설치하려고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와 전라남도, 대전시 등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박시설 유치에 온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륜장 건설의 타당성 검토 및 그동안 공청회나 간담회에서 나온 결과를 소상히 대전시민들에게 밝히고, 경륜장건설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시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건전한 레저문화가 육성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사행산업 관련규제의 대폭강화는 물론, 건전 레저 산업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방안모색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정부는 지방세수 확보에 혈안이 되어 경쟁적으로 도박시설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열경쟁을 막고 올바른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박시설에서 나오는 기금을 해당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교부세 개념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부는 낙후지역 개발 등을 도박산업 허가를 통해 일거에 해결하려는 발상을 버려야 하며, 도박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막기 위해 일본의 사례처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감독위원회를 만들어 사행산업의 규제와 도박중독자 치료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경륜장 건설에 대한 설문조사

※ 백과사전에 나와있는 경륜장이란?

관람객이 돈을 걸고 순위를 알아맞추면 당첨금을 내주는 자전거 경주도박장

대전시는 자전거 경주에 돈을 걸고 당첨금을 배분하는 경륜도박장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조사는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의식 조사를 통하여 올바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이 살기좋은 대전을 만드는 귀중한 도움이 됩니다.

※ 아래의 질문에 귀하의 생각과 같은 사항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시가 대규모 경륜도박장 개설을 추진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2. 대전시의 경륜장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월평동의 실내 경마도박장과 유성의 실내 경륜도박장에 이어 경륜도박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① 찬성(2-1번 문항으로)
 - ② 반대(2-2번문항으로)
 - ③ 잘모르겠음
- 2-1.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두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레저스포츠인 경륜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음으로.
 - ②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므로.
 - ③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확보 할 수 있으므로.
 - ④ 다른지역에 입지하는것보다 대전에 입지하는 것이 좋으므로.
 - ⑤ 경륜뿐만 아니라 수영장 등 종합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 ⑥ 기타(_____)
- 2-2.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두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경륜도박장은 건전한 관람스포츠가 아니라 도박산업임으로
 - ② 대규모 도박장으로 사행심 조장, 서민가정의 파탄(각종 유흥업소의 입주난립)
 - ③ 교통, 생활환경의 파괴(1일 수만명에 이르는 이용객, 교통문제)
 - ④ 사행심을 조장하고 교육환경과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의 생활환경을 파괴하기 때문.
 - ⑤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기 때문에
 - ⑥ 기타(_____)
3.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4. 귀하의 나이는? ① 19세이하 ② 20세-29세 ③ 30세-39세 ④ 40세-49세 ⑤ 50세-59세 ⑥ 60세 이상
5. 귀하가 사는 곳은? ① 동구 ② 중구 ③ 서구 ④ 유성구 ⑤ 대덕구 ⑥ 기타지역

<끝까지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